

#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 2.1.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2.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 3.1. 배경
  - 3.2. 다문화관련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4. 결론

## 국문초록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및 적극적인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친화형 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802)

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결혼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주제에** 한 아세안 교류 증가, 결혼이민자, 양성과정,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 1. 서론

2019년 11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 정상회의 이 한 아세안의 교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10 국)<sup>1)</sup>과의 외교·경제적 력 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지 아세안 회원 국가 대상 전체 정 초·중등학교 대학 내에 한국어과정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적 적 교류의 기본 취지는 외교 경제적 력을 강화하려는 정 이다. 이러한 한·아세안의 력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력은 인적 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상되며, 다양한 분 에서 심화적으로 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rtiniello(2002)는 이민으로 형성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됨으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 정도 받아들이는 다원주의적 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특 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하다. 한국의 이민 유형의 특성상 아시아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 아, 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이민자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현재 이민자 중 218만 명 중에서 24%가 아세안 국가 이다(법 부 2021).

---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2022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가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10개국이 회원국에 속해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이에 따 경제적 면, 통 인 라 관 한 발전하고 있다. 국가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 민자들을 유입하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민 자들을 선 할 수 에 다.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 연구는 주로 FTA, 기 력 등 경제 교류 면(김동엽 2022; 유진 외 2022; 이요한 2021; 민정 2020)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경제 교류 면에서 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인재 양성 관 은 경제적 면과 대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 에 아세안 국가 이민자들을 체로 하는 연구는 전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콘텐츠를 국가를 초 하는 양상이 존재하 로, 국제 적인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서 결 이민자<sup>2)</sup>들을 체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국의 전체 이민자 중에서 아세안 국가 결 이민자들의 현 에 따 특성화 추진 경과 둘째, 경 주요 추진 현 을 통해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2019년 한·아세안 특 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

2)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신 체류자격), F-6-2(자녀 양육), F-6-3(혼인 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로 귀화 등으로 혼인귀화자는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제외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용어 설명,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의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를 정의하고 있다.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발한 정 내용에서는 화(Peace), 상생 영(Prosperity) 그리고 사람(People)의 3P, 3대 영역의 16세 부과제를 제하였다. 기존의 한국과 아세안 교류는 주로 역자 중심 경제 관계로 진되었기 때문에 남방정을 통해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한·아세안 관계'로 질적 전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요가 있다(조영 · 최경 2020).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용어 념에서 화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로 산업, 경, 고령 등에 기반한 연구에서 화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현장 화형(장승권 외 2013; 이상원 2021), 도시발전방안, 가로등 자인 등의 시민 화형(김미성 외 2022; 정용진 외 2022), 운동기구 발, 공원만 도 등 고령 인 화형(조현주 외 2017; 인샤 엔 외 2022) 관 분 가 연구되고 있다. Martiniello(2002)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국가의 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도 지 다는 점에 주목해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아세안 국가 결 이민자들은 전체 체류외국인<sup>3)</sup>보다 국민됨을 전제로 정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모국의 언어를 하여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아세안 10 국가 결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쌍방향 언어에 대한 화력이 자연적으로 높을 수 에 고, 경이 국제적으로 국제 화형이라고 정의한다.<sup>4)</sup>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인

3) 체류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을 두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말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의 통계에서는 국적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본 연구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자원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에서 결 이민자들이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역량을 갖추도 특성화 방안이 발되어 운영된다면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업 를 수 할 수 있는 적 한 교육이 요하며, 적 한 교육을 거 인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형래 2006).

법 부 통계 보 2022년 8 기준 결 이민자들은 170,307명이며, 인 화자는 151,313명으로 조사되었다( 입국외국인정 본부 2022년 8 통계 보). 결 이민자들뿐만 아 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 언어, 문화적 근의 면에서 바라 때, 한국사회의 공존을 위한 결 이민자들의 역할이 정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결 이민자들은 연령대 로는 29세 이하 14.3%, 30대 36.4%, 40대 24.0%, 50대 16.0%, 60세 이상은 9.2%로 젊은 연령대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 체류 기간 로 보면 15년 이상이 39.9%, 10 15년 미만 28.9%, 5 10년 미만 19.2%, 5년 미만 12.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15년 미만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15년 이상 거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여성가 부 2022). 이러한 결 이민자들의 젊은 연령층과 장기거주화에 따 이들의 언어, 문화 등 특 을 반영하는 정 이 다양하게 시 될 요가 있다.

다음의 < 1>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체류외국인의 계로 결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로 나타내고 있다. 루나이의 경우에는 체류외국인의 통계는 있으나 결 이민자들은 아직 다. 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 국가의 계에서 결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 이민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통번역사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인 5급 이상으로 결혼이민자들 중 다문화 인재 범위를 두고자 한다.



류가 상 소통을 근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라 상호 소통의 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다소 미흡하며, 게다가 결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만연해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sup>5)</sup> 이러한 현상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하고 있다. 유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하나의 근방안은 아세안 국가 결 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내국인에게는 아세안 국가의 문화 등을 전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 등을 전하는 역할의 가능성이다. 나아가 한·아세안 정치, 경제, 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 인재로서의 연계 가능성이다.

둘째, 한국 내에서도 이민자들의 분포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부산에서 진행된 아세안·아세안 정상회의 시점 동안 부산을 다간 사람이 2만 6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놀라운 성과로 기록되었다(이재현 2019: 172). 특히 부산 지역은 아세안 국가에 속하는 베트남 결 이민자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국가 결 이민자들의 통역 등 활동이 풍부한 지역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법부 2021). 국제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근하고 있다. 김정주·김경연(2017)은 일본의 국제 발력 증 교육 분야에서 특히 ASEAN에 대한 교육 발력 방안 정 전략을 연구하였다. 한태인(2011)은 대학의 국제력 네트워크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운영과 교육 자원, 프로그램 발공유와 ICT 수준 차이의 최소화, 교육시장 방에 대비한 고등교육 질적 제고 대학의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3.21):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인권 정책' (<https://www.humanrights.go.kr>).

세째, 상력적 인적 자원 기반의 공유와 확산이다. 한국의 결 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지 일시적이며, 형의 교육 구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 이민자들이 향 소통, 역, 문화교류, 의 등 국제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있어서 결 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방안 제시를 목 로 한다.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역 방면의 용 을 도모할 수 있어 한다. 2022년 기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가 이민자는 60만 명 정도에 한다. 체류 기간 기준으로 보면 장기체류가 61%이며, 기체류는 38%, 영주를 비 한 기타 자격 체류가 1%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 유형 기준에서는 동이주 55%, 결 이민자가 16%, 유학생은 14%, 기타가 15%를 차지하였다(2021, ASEAN Korean Journal).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 에 대한 비 적 논의가 여러 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이 아세안을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의 수준 역시 변화가 요하며, 이는 아세안으로 향하는 한국인 수는 한국으로 는 아세안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서도 을 수 있다(법 부 2021).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 경쟁력 시장이 수 거대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 인재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와 관 된 이주산업은 수 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한 과학, 통 의 발 과 불어 전 세계가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초 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활용을 통한 력적 관계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다(조선왕조실 ). 한·아세안 관 연구로는 주로 교육 발 력에 관한 것으로 김갑성(2012)은 한



국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교육 발전을 위한 력 주도국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교육 발 관 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채재은(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 발 력에 있어서 베트남에 대한 수요를 보고, 이를 위한 방안을 교육적 근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역할에 대해 분 하였다.

결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우자로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 들 지 관계 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 실태조사에서 결 이민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 이민자들이 전체 대비 39.9%로 정착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자 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 의 자 들 중 만 9세부 24세 지는 44.9%로 2018년 실태조사 대비 8.3% 상승하였다. 다문화가 의 자 들이 주류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 부, 2021년 전국 다문화가 실태조사).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전 하고 있으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상 의존적인 아세안 국가들과 으로 한 관계로 연계될 것으로 된다. 반면 아세안에 대한 인적 자원 발 관 한 연구는 다 분 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전 세계를 강타했 코로나 19 팬데믹 상 하에서 한국의 체류외 국인은 급감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아세안 공동체 추진 동력이 화될 가능성이 높아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19 통 구전략인 '아세안 괄적회복 레 크(ACRF: ASEAN Comprehensive Fecovery Framework Lmplementation)를 발 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 은 한국이 아세안 공동체의 목 가치와 긴 히 연계되어 있으 로 한·아세안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라미령 외 2022).

연도 인구대비를 보면 2016년에서 2021년 지 체류외국인조사에서,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은 2017년 4.21%, 2019년 4.87%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반면 결 이민자들에 대한 국제결 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 이민자와 같이 화 상태를 보이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인 우자를 초 하기 위한 의 교육인 국제결 안내 프로그램이 여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 이민자들의 수도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 다. 다음의 < 2>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우자를 초 하기 위해 의 적으로 이수해 하는 국제결 안내 프로그램 여자 현 을 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한편 한국의 사회통 에서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을 위하여 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양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4 시 사업을 시 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 로그램을 2010년부 2022년 기준 현재 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 로그램 운영과정은 한국어 한국문화 4 계(기초 계 416시간),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5 계는 기본반(70시간), 심화반(30시간)으로 운영 되고 있다. 한 사 교육과정으로 2022년 7 부 F2(거주), F5(영

- 6)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7개국 출신 이민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주), 국적취 정자, 화 자 이공계 연구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 화자의 권리와 의 , 법질서 교육 등 통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 시민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지역 정보 등 기초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화적인 통 역과정 등 전문가 과정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회통 로그램 운영기관은 2009년 전국 ABT(Active Brain Tower) 대학을 중심으로 20 소에서 시 하였으며, 2022년 기준 현재 366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통 로그램 전체 여자 수는 2022년 8 지 373,034명으로 나타 다(사회통 정보 Soci-Net). 이러한 이민자 여자 수는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 지 한국의 이민자 점수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부 통계 연보 기준 2021년 전체 이민자 여자 43,552명 중 결 이민자는 18,096명으로 4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은 6,442명으로 14.8%, 기타 체류자격 소지 재한외국인 등은 19,014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법 부 입국·외국인정 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이러한 에서 기존의 다문화 인재 관 연구에서 심 가치와 의를 세심하게 분 하여 수용 으로 다문화 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계에 대한 기본 대로 삼을 수 있다. 결 이민자들에게 요구 되는 능력의 양 방안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 본 연구는 한·아세안 교류 력 차원으로 결 이민자들이 가진 특성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 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향 결 이민자들 자 에게 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아세안 간 한류로 인한 이커 스 등 관 콘텐츠 산업은 수 모가 커지고 있다. 실시간 아세안 국가의 품을 소비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상품 한 아세안 국가로의 시간적 지리적 제 사 을 초 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 교류의 증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요구된다.

한편 결 이민자들의 통 역 능력은 몇 가지 분 에서 나타나고 있

다. 2020년부 SNS 등 소셜미 어에 15 국 언어로 역된 코로나 19 팬데믹 방 수 에 관한 스 가 공유되었다. 질 관리본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에 베트남, 리핀어(타 로그어), 러시아어, 캄보 아어, 일본어, 네팔어, 미얀 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우즈베키스탄어 국가 언어 13 버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13 버전의 스 는 결 이민자들의 통역으로 이루어 다.

통 역 직업 관점에서 결 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주류언어와 문화에 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 된 직업이다(김경 외 2014). 결 이민자 통 역서비스사업은 2009년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결 이민자들을 위해 생성되어진 직 이라고 할 수 있다. 결 이민자들은 쌍방향 문화를 모두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구성원이다. 심나경(2017)은 결 이민자 특화 직 분 로 통 역사, 다문화상담원,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 이민자들의 특 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 가 한국사회에 홍보될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선 자립 면에서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문화연구소 2015). 반면 이러한 특 을 적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sup>7)</sup>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의 관점에서는 국제 교류의 주역으로의 위치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 외 2012: 90-91).

장 리(2011) 연구에서는 통 역사 본인이 이질적인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과적인 문화소 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형재(2016)의 연구에서

7)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미국의 학계에서 범죄심리를 연구하는 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의 연구에서 깨진 유리창 한 개를 그냥 방치해 두면 방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범죄의 확산이 시작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아주 작은 의미의 무질서를 방치하면 이후에 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https://namu.wiki>).

는 커뮤니케이션 역사는 문화 소통 문화 중 에 덧붙여 글로벌  
역 시장에서도 요구되는 언어(Language), 문화(Culture), 무역(Trade)  
LCT의 자질을 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생교육기관, 응용 전공 등을  
활용하여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21년 전국다문화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관련 조사에서 국적 상용직 비율은 유엔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66.6%로 높게 차지하였다. 반면 시직 비율은 필리핀  
23.9%, 캄보디아(24.8%) 등 아세안 국가들이 시직에 많이  
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 조사에서 나타내듯, 결혼 이민자  
들이 활동 분야 여전히 시직과 관련한 직종에 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지원 부처 지자체, 대학,  
NGO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적 역량  
강화 실경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이 고려되어 한다.

부산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한다.<sup>8)</sup> 그리고 부산 지역은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높은 인식적 과는 상당하다  
고 수 있다.

부산 지역의 대학 기관 중 한·아세안 언어 전공을 하고 있는  
부산의 B대학은 학부 통역대학원에서 전공자들을 하고 있다.

한 B대학은 다문화연구소 관련 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 인재 양  
성 관련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의 통역 교육과정 외에 통역서비스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 지원 (현 가  
 )의 특화사업으로 시되었다. 한국 강가정진 원에 따르면, 전  
국 다문화가 지원 에 치되어 있는 통역서비스 사업을 담당하

8) 부산 지역 결혼이민자 총계는 13,255명으로 베트남(4,485명), 중국(2,622명), 중국  
한국계(2,250명), 필리핀(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2).

고 있는 전담인력의 국가 언어 제시에서 중국, 베트남, 리핀이 전체 인력의 8.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몽골어, 일본어, 캄보 아어, 태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순이며, 10 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한국 강가정진 원 2021). 아세안 국가 10 국 중 베트남, 리핀, 캄보 아, 태국, 인도네시아 5 국이 전체 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된 전국의 다문화가 지원 통 역 전담인력은 312명이 치되어 있다(여성가 부 2022). 통 역 담당 결 이민자들은 다문화가 지원 의 전담직원으로 근 하고 있다.9) 여성가 부의 통 역서비스는 고졸 이상의 학력 한국어능력시 (TOPIK) 4급 자격증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 2회 양성교육 32시간과 보수교육 18시간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통 역 등을 수로 하는 전담직원들의 전문화 (Specialization), 소 트웨어화(Softwarization) 등의 전문성을 양 하기에는 부 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특성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기관 면에서 보면, 현재 시 되고 있는 법 부의 사회 통 로그램을 이수한 결 이민자들을 활용한 전문가 과정이 요구된 다. 를 들어 통 역 과정(모국어 한국어 논리적 글쓰기와 하기 등), 국가의 대외 주요 정 과정, 한국의 대외 주요 정 과정 등 을 이수하게 하는 특성화 방안이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통 로그램 거점기관인 대학 등을 활용하여 결 이민자들이 통 역과 관 한 보수교육 등의 시·공간적인 문제 지 해 결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거점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생교육원, 관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근을 고려해 한다.

둘째, 결 이민자들이 학력 장 대학에서의 관 전공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도 근 시스 의 보강이다. 학력 장을 위한 방 안으로는 한·아세안 국가 결 이민자들뿐만 아 라 전체 결 이 민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제도 일과 학업을 할 수 있는 ·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로 임용(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라인 수업 등을 대학 차원에서 특성화하여 할 요가 있다. 대학은 적 적으로 다문화사회 발전과 연계되는 특성화 추진 방향에 부하는 력이 요하다.

#### 4. 결론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적 적인 교육 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과성은 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 결 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은 모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특성상 의미있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결 이민자들을 활용하는 방면은 다 적으로 근되어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결 이민자들은 국제적 공존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를 초 하는 다양한 연구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 다는 면도 제시된다. 이에 따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결 이민자뿐만 아 라 다양한 이민자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결 이민자들에 대한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과 결 이민자들의 적 적인 의지가 관 이다. 아울러 지자체 민간 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 속연구에서는 형의 교육 구 만을 의미하지 않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

.

.

.

.

.



- 
-

.

## Abstract

# A Study on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Hwang, mi-hy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Korean multiculture society is a key issue for the creation competent and talented human resources for the production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how to characterize and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 success of multi-disciplinary education will be maximized when cooperation with the responsible ministry, the active will of the ministry, the exchange increase vision of the university, and real-time and active administration are suppor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of the human resources in the multiculture society, we found out that the multiculture society requires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ho has the creativity, practical appliction abilit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Key words]** Korea-ASEAN Exchange Increase,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